



두번째 이야기

총성된 사람들!

[사랑의 빛진 자① 서남아 테이블]

네팔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카드가 목사님께

BEE Korea의 서남아 테이블에서 목사님과 네팔의 BEE 사역을 위해 매주 중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네팔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란 시온 교회를 중심으로 21개의 지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 총성된 모습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교인 수도 많이 늘어나 교회의 증축과 보강 수리가 필요하다는데...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기 위해 건축이 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가족들과 교인들, 학생들 모두를 위해 주님 앞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희주 드림

실라스 선교사님께

네팔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사역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삶을 풍족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형제들이 속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 예배당 부지 구입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창선 드림

수리아 따망(Surya Tamang)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자녀들의 학업과 담임하는 다란 교회가 날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BEE 사역을 다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지역목회자가 하나되게 하는 역할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이규인 드림

살몬따망 선교사님께

네팔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사역을 섬기시는 살몬 따망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의 열심과 BEE 사역에 기쁨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선희 드림

폴 선교사님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께 이렇게 기도 편지를 쓰려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네팔 땅이 오늘 따라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선교사님이 지치지 않게 영혼육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하늘의 전략들을 풀어주시고, 신실하고 총성스러운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교회 재정과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사역에 있어서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도록합니다.

두 따님에게 창세 전에 예비해두신 부르심의 영역으로 확고하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늘 평안하세요. 샬롬!

양은경 드림



암비카 자매님께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자매님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번역으로 섬겨주시고 행정처리도 잘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암비카 자매님은 BEE의 든든한 일꾼입니다. 자매님의 헌신으로 네팔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번역과 행정처리가 잘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자매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숙민 드림

스리랑카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Dear sister Manoh!

I heard of you because I have prayed for BEE members in Qatar. Now I am on the prayer team for South Asia, especially Sri Lanka and Nepal. I know that you were in charge of checking the study book translated into Sinhala.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dedicated to the evangelization of Sri Lanka. I believe that God will rejoice in your faithfulness. I will pray for you and your ministry with the members of prayer team. May you always be happy in your ministry and everyday life.



정원만 드림



Greetings, Sam and Sheena!

My name is Kwang Lee. We met in Korea a long time ago. Whenever I hear in your efforts to live for Christ, with you I am well pleased. Trust you fulfill your God-given purpose and realize the kingdom of God.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r ministry for his people to follow God's will. God Bless you!

이광, 박소현 드림



박영근, 추행란 선교사님!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에 전심을 다하시는 박영근, 추행란 선교사님! 비록 그 땅을 떠나 있지만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계신 곳에서 사역에 은혜를 넘치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김종량 드림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리어나 야만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23년 'BEE 섬김 프로젝트' 130년 전 이 땅을 찾아온 사랑 속에서 '사역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해외선교 현장에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섬김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을 후원함으로 선교지와 관계를 강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아프리카 현지 선교사 자녀 장학금 후원 진행 중) 2023년 'BEE 현지인 선교사(과테말라 선교사 9명) 생활비 일부 후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기간: 2023. 03 ~ 2025. 02(2년)

연락처 정보:

Tel: 02) 822-9480 (내선 102)

E-mail: mail@beekorea.com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1/10

가장한테 헛바람 넣어
가족도 팽개치게 만든
그 작자...

베드로의 장모

사돈중간 안드레와 함께
예수라는 작자의 단체에 가입해
밤이고 낮이고 그자와
함께하기 시작했다.

이 집구석에
밤별이를 할 남자가
한 놈도 없다.

지난주엔 딸년이 보고 와서
미주알고주알 말해 주는데,
남편 내주고 뉘 참 속도 편하다
버럭 역정을 냈다.

가장한테 헛바람을 넣어
가족도 팽개치게 만든 작자...!

근처 회당에서 집회 중이던
그 사람이 집으로 달려왔다!

고열로 혼미한 중에
그가 열병을 꾸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내 양손을 잡아당겨
침상에 일으켜 앉혔을 때,
머리에 잔뜩을 맞은 듯
몸과 정신이 확 깨어났다.

예수는
발세도록 그들을 맞아들이며
병을 고쳐 주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안타까운 연민의 빛을 보았다.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다.

사위가 또 바람이 들었다.
이번엔 말려도 소용없다.

예수의 무리가 가버나움을
아예 본거지로 정하고
갈릴리 여기저기를 다니며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킨단다.

요 며칠 전부터 열이 나고
몸 여기저기가 우셨다.
오늘은 몸속의 피가 절절 끓고
온몸에 열꽃이 돋았다.
안식일이라
의사도 안 온다 하고,
이대로 죽나 보다 할 때

밖에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아우성이다.
해 떨어지자마자
온 동네 환자들이 뛰쳐나왔다.
안식을 위해 안식일이 끝나기만
은총일 기다린 사람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사도 몸 사리는
지엄한 안식일을 개의치 않고
사람 목숨부터 살려내고 보는
이런 사람이라면...

사위만 내줄 게 아니라
나도 따르고 싶다고.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